

## 한국불교, 일본열도를 감동시키다

### 조계종 대표단, 東일본 지진 희생자 천도제

한국불교의 자비 손길이 일본 열도를 감동시켰다. 조계종 대표단 자승스님으로부터 9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며, 희생자들에 대한 천도제를 봉행하는 자비 나눔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 셋째 날인 8일, 동일본 지진의 최대 피해지역인 미야기 현 센다이 시에서의 일정은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과 함께 감동을 전달했다.

대표단의 첫 걸음은 센다이 시 외곽에 자리한 '동북조선총동맹학교'였다. 2차 지원에 나선 대표단은 같은 민족으로서 슬픔을 겪은 학생과 교사들을 위로하고 복구 지원금과 선물을 전달했다. 다음 일정은 이번 일본 방문의 하이라이트인 '희생자 합동 천도제'였다. 일본 조동종과 함께 봉행한 천도제에서 대표단은 한국불교의

“  
 피해자들도 위문  
 “눈물겹게 감사 또 감사”  
 ”

식을 펼치며 너와 나 구분 없는 세계 일화(世界一花)를 실천했다. 이와 함께 일본 피해자들의 위문에도 나섰다. 대표단은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창림사(昌林寺)를 찾아 주지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을 위로하고 아

픔을 함께 나눴다.

조계종 대표단은 같은 날 늦은 오후까지 강행군을 펼쳤다. 센다이 시에서도 최대 피해지역인 유리야케 마을을 찾았다. 해안가에 위치한 유리야케 마을은 한꺼번에 시신 300구가 발견된 곳으로 마을에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정도였다. 예전에 집과 건물이 가려 바다가 보이지 않았지만, 지진해일이 휩쓸고 간 마을은 현재 파도치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정도다. 대표단은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자들의 아픔이

다시 없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했다. 또 지붕과 기둥만 남은 마을 사찰인 '동선사(東禪寺)'를 참배한 대표단은 지진 발생 당시 주지 스님이 임적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목념을 통해 스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렸다.

▶관련기사 5면

길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조계종 대표단 방문에 일본 불교계와 일본인들은 크게 반기며 고무된 분위기였다. 한국 스님들이 내민 따뜻한 손길에 일본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일본 센다이=김하영 기자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역 완간기념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신재호 기자

###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찾는다

#### 승진위, 20일 대토론회

한국불교에서 출재가의 관계와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총무위원장)는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찾다'를 주제로 오는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진흥을 위한 7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여름 휴가철을 피해 한주 앞당겨

진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전에 나타난 출재가자의 의미를 비롯해 중무행정과 대사회활동 등에서 출재가와 재가자의 역할을 살펴본다.

중앙총회의원 일문스님이 발제하며,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중앙총회 사무처장 성효스님,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 조기룡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어현경 기자 eonako@bulgyo.com



'중단 없는 결사' 발원 조계종 중앙총무기관과 유관기관 총무원들은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영장에서 제3차 100일 정진 입제식을 갖고 '나부터 자성과 혁신 결사를 앞장서 실천할 것'을 발원했다. ▶관련기사 2면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 알림

#### QR코드로 만나는 불교신문 뉴스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작한 불교신문은 주요 뉴스를 QR코드로 제공합니다. 불교신문 인기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 "사색의 열매 보듬는 것이 불교이자 진보" '진보와 불교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기획좌담
- 불교관 마음 담아서 보는 삶 이렇게 소설가 김연수가 말하는 '불교 이야기'
- 부처님께 '워크'·'부처님도 '일부' 트로트계 '손녀시대' '윙크' 인터뷰

고유성갑 제헌의원 유족 기증 불교자료 3면

### 연등회 무형문화재 지정 '보류' 9월9일 최종결정

불교계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보류된 반쪽을 사고 있다.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위원장 임동희)는 지난 8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화재분과위원들은 5명의 문화재위원이 참석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연등회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한 뒤, 오는 9월9일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조계종에서는 이미 지난 2009년 연등회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

으나 '전통 고증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연등회의 역사성이 단절됐던 점, 연등행렬이 일제강점기의 행렬과 유사한 점, 전통 등(燈) 제작의 계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형문화재 지정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형문화재분과위의 결정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9월9일까지 부족한 자료 보충과 무형문화재 분과 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에 연등회의 문화재적 가

치와 의미에 대해 알려 연등회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스님은 "소위원회가 구성돼 연등회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무형문화재 재분과위원회에서도 문화재 지정에 대한 의지와 애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9월9일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만큼 학자들의 안목을 믿고 기다릴 것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 전통사상총서 한글본 완간

#### '한국불교문화 정수' 조계사서 봉정법회

1700년 이어져 온 한국불교 고승대덕스님들의 주요 저술을 담은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역(譯) 13권이 완간됐다.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역 완간기념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2006년 12월 간행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는 2012년 6월까지 진행되는 한국전통사상총서 간행사업은 한국불교문화의 정수인 원효·의상·지눌·휴정스님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의 저술을 한글과 영어로 번역해 출판함으로써 국내외에 한국불교의 본모습을 알리는 대작불사다.

한국전통사상총서는 한글본과 영역본 각 13권씩 총 26권이 발간되며, 지난 12일 봉정법회는 한글본 완역을

부처님께 고하는 법회로 마련됐다. 총서는 <원효> <지눌> <휴정> <화엄1> <화엄2> <제교학> <공안집1> <공안집2> <선어록> <시선집> <문화> <계율> <비문집> 등 총 13권이다. 또한 관찬과정에서 1~2명이 번역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자의적 해석을 차단할 수 있는 다자간(多者間) 번역시스템을 도입했다. 공동번역 및 교정작업을 진행한 뒤 한글역자와 영역자간의 교차검토라는 확인과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국내외의 40여 명의 필집진들이 참여해 번역의 완성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보조연구원 23명도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후학도 양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불교문화의 위상 제고와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면에 계속  
 박인탁 기자 parkintak@bulgyo.com

## 아름다운 숲길 걷기와 명상의 만남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걷기명상



사찰이 간직한 아름다운 숲길을 혼자 및 국민들과 함께 걸으며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을 통해 지친 삶에 새로운 다짐의 시간을 마련합니다. 백범 명상길은 마곡사가 자리한 태화산 숲길 중 백범 김구선생이 출가하여 수행한 흔적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로 기념관, 사발터, 백범교, 황토길, 천연송림욕장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범 명상길은 가족단위 산책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된 백범 명상길을 걸으며 나라사랑의 큰 뜻을 새기고 마가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명상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일 시: 2011년 7월 23일(토)
- 장 소: 백범 명상길(공주 태화산 숲길)
- 주요프로그램 -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걷기명상  
 - 백범 명상길 산책  
 - 마곡사 참배  
 - 음악과 한잔의 차(茶)로 만나는 自我
- 동참금: 48,000원(여행자보험가입, 점심-전통불교문화원 채식뷔페)
- 출발: 조계사 앞 오전 9:00 → 봉은사 앞 오전 9:30
- 동참문의: 02)739-6699
- ※ 행사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행사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 참가자 전원 고급티를 기념품 증정

주최\_ 불교신문· 숲과우리문화(준)·(사)자비명상  
 주관\_ 다우빈투어(www.dvw.co.kr)

